

나가하마 히키야마 마쓰리

나가하마 히키야마 마쓰리는 어린이 연기자들이 화려하게 장식된 이동식 무대에서 가부키(일본 전통 연극)를 선보이며, 18세기부터 매년 개최되는 활기 넘치는 봄 축제입니다. 교토 기온마쓰리, 히다 다카야마 마쓰리와 함께 일본 3대 수레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호화로운 히키야마의 행렬이 가부키를 상연하기 위해 도중에 멈췄다가 시내 중앙 상점가를 통과해 나가하마 하치만구 신사까지 끌고 갑니다.

히키야마라 불리는 바퀴가 달린 무대는 신사의 샤덴(신사의 건물)처럼 곡선 지붕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통 공예를 결집한 장신구나 조각, 그림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연기를 맡은 것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지역 어린이들이지만 의상이나 음악, 가부키의 완성도는 프로급입니다. 어린 연기자의 열정이 느껴지는 연기와 생생한 감정 표현은 어린이 가부키의 묘미입니다. 무대가 있는 히키야마는 12대이며, 매년 4대가 교대로 등장합니다. 그것과는 다른 모습의 '나기나타야마'라는 세발 히키야마는 매년 등장하며, 상부에는 다치와타리(어린이 무사 행렬)에 사용한 태도(60cm 이상의 장검)와 깃발로 장식합니다.

시내 중심부의 좁은 길을 통과하면서 히키야마를 끄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히키야마는 각각 높이 6~9m, 무게는 5~6톤이나 됩니다. 전통적인 축제 의상을 입은 젊은 남성(최근에는 여성들도) 그룹이 힘이 필요한 히키야마의 히키테(히키야마를 끌고 움직이는 역할)를 맡습니다. 히키야마 축제는 4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며, 어린이 가부키는 13일 밤, 14일 아침, 15일부터 16일에 걸쳐 선보입니다.

나가하마 히키야마 축제는 1979년에 중요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고, 2016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